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사회의 방언 보존에 대한 조사—

강정희

이 조사는 오사카 거주 제주출신 재일 동포 1세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어 사회 안에서의 제주방언 보존 실태에 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음의 보존 현상이다. 조사 결과 이 사회의 70~95세인 고령 집단에서는 ‘·’음의 보존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하에서는 조사되지 못하였다. 이 1세 사회 안의 ‘·’음에 의한 방언차는 ‘이주 시기+나이’가 적용될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60대 이하 집단에서 이주 시기가 변수가 되는 이유는 이들 집단이 제주도 현지에 있었던 언어습득 완성 시기인 1950~1960년에 이 지역이 급격한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외부 언어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50여 년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 지역의 방언형이 현재 오사카 거주 재일 동포 1세 사회에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었다.

핵심어 : 이주 시기, 나이, 언어 접촉, 방언 보존

* 이 조사는 2001 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보고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들의 일본어와의 접촉에 의한 방언 변화 현상 중 1)제주방언의 보존 2)일본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방언의 내부변화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서 1)에 관한 것임을 밝힌다.

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오사카 거주 제주방언 화자 1세 사회의 제주방언의 변화를 일본어와의 접촉에 의한 방언 내부의 변화로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조사는 우선, 이민 사회의 언어 변화가 모국의 언어 변화 속도보다 느린 이유는 이민 사회에는 이주 시기 언어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언어 변화는 실제 시간과 현장 시간 방법으로 그 진행 모습이 관찰 가능하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조사 분야는 첫째 이 방언(이하 제주방언을 이 방언으로 지칭함)의 보수형의 보존 현황, 둘째 나이와 이주 시기에 의한 방언 변화 현상, 셋째 일본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방언의 내부 변화 현상의 세 분야로 나누되, 본고에서는 앞의 두 분야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우선 다루기로 한다.

동일 언어사용 사회 안에서 지역 언어 변화를 유발하는 언어 외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외부 언어와의 접촉이다. 지역 방언들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이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즉, 외부 언어가 일단 해당 방언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 서로 조정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방언 내부에서는 외부 언어에 대하여 세력이 강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고, 세력이 비슷한 것은 타협하며 공존하는가 하면 힘이 약한 것은 항복하고 마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음운, 형태 등의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부형(보수형)과 공존형(타협형)과 그리고 항복형(소멸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일 동포 사회의 언어 생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제주방언 화자에게 일본어라는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이 방언과 외부 언어인 일본어와의 접촉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자 1세 집단에서 이런 현상—보수형의 유지형, 공존형 소멸형의 출현 현상—은 비교적 오

랫동안 지속된다. 그 이유는 초기 이주자들은 목표 언어인 일본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경우보다 자연 습득(언어 접촉에 의한 습득)의 경우가 많아서 목표 언어 습득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주 방언에서 일본어로 전환해 가는 언어 습득 과정은 1단계 ‘제주방언>일본어’, 2단계 ‘제주방언×일본어’, 3단계 ‘제주방언<일본어의 이중 언어 사용 단계를 거쳐서 4단계인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¹⁾ 목표 언어인 일본어를 습득하는 이와 같은 과정은 특히 이들이 모국어로 의사 소통할 경우에 많이 조사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사용이라는 담화 상황에서는 제주방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자가 있는 반면에, 일본어를 더 많이 쓰는 화자도 있다. 재일 동포 사회 안에서 이와 같이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 방언 화자들은 이주 당시의 방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형에 따라서 이주 시기를 유추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 시기가 이른 화자 집단에서는 자연히 방언의 보수형이 많이 조사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역 방언의 보수형 자료 조사는 해당 지역의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방언의 경우는 고령자 집단 외에 앞에서 거론한 재일 교포 제주 출신 1세 집단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의 특성이 지금부터 30~60년 이전에 제주 지역에서 이주한 집단으로, 표준어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현재 제주방언 화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집단이므로 이 방언의 보수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지되어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이러한 예상에 근거하여 이 집단 구성원들의 방언사용에서 조사될 수 있는 이 방언의 보수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음의 유지 현황을 조사하되, 과연 ‘이 집단의 방언 변화가 진행중인 대상으로

1) 부등호는 모국어인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용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 관찰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할 것이다. 만일 본 조사 과정에서 이 현상이 확인된다면 ‘진행중인 언어 변화에 대한 외국의 연구 조사의 제보자들이 동일 언어권 안에 거주하는 집단이었음에 비하여, 본 조사는 본국과 오랫동안 격리된 이주 집단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 집단 내부의 언어 변화를 반세기 전 실제 시간에서 현장 시간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관찰·조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조사 결과는 2차로 실시될 제주도 현지의 방언 변화 방향과 속도에 대한 조사의 기본 자료로써, 또 다른 실제 시간 방법에 의한 이 방언의 변화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기본 내용은 제주방언을 다른 지역 방언과 변별하는 언어 변수인 ‘·’음의 발화 빈도수 보존 현황을 기초 어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방언에 존재하는 ‘·’음에 대한 조사, 보고는 이송녕(1953), 현평호(1964)의 국어학적인 것 외에도, 민담·설화 자료 안에서 이 모임의 발화 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950~1960년대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채록한 진성기(1975)와 1970년대 조사한 현용준(1980)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진성기(1975)와 현용준(1980)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불과 10여년 사이에 ‘·’음의 발화 빈도수가 진성기(1975)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상에서 표준어화한 개신형의 양이 많아진 것으로 채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두 자료에서 느끼는 방언상의 차이는 우리에게 이 지역 방언에서 ‘·’음의 소멸이 1950~1970년 사이 언제부터인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할 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 방언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자료집의 채록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인 1970년대 이전에 이 지역에서 일본 사회로 이주한 이 방언 화자들 집단에서 30년 즉 한 세대가 지난 2002년 현재 ‘.’음의 실현 여부는 어떠할까? 만일 실현된다면 그 양상은 현재 제주도 현지와 어떤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 만일 본 조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의문점이 해결된다면 이 이주 집단과 현재 이 지역의 방언 변화 속도의 차이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언에서 ‘.’음의 소멸 시기를 재구할 수 있는 소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 과정

3.1. 조사 기간과 대상 지역 및 집단

본 조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5월 15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일본에서 제주 출신 제일 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大阪市 生野區와 東大阪市の 제주 출신 1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인 이 집단의 이주 역사는 식민지 시대인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1세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기본 목적이 보수형 자료 수집에 있다고 하여 고령자 1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1세 집단’의 범위를 200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한 세대 전까지 이주, 즉 1970년대 이전에 이주한 집단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 동포 1세 집단의 나이 분포와 이주 시기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1세 집단 안에서도 방언 차가 존재할 것이며, 존재한다면 방언 변화의 과정 또한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3.2. 조사 단계 : 예비 조사→본 조사

3.2.1. 예비 조사(2001. 10~11 : 2개월)

이 단계는 방언학에서 행해지는 조사 지역을 사전에 예비 답사하는 성격과 동일한 의미의 현장 답사였다. 대상 지역은 生野區에 있는 朝鮮市場이었다. 이 곳에서의 예비 조사는 상인들 가운데 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으로 값을 묻거나 식품 이름 등을 물으면 본 조사자에게 제주방언으로 대답을 해 주는 형식으로서 제주방언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3.2.2. 본 조사(2001. 12~2002. 5. 15)

본 조사는 3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는 제일 동포 1세 집단이 보수형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보수형의 어휘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조사는 본 조사의 예비 조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조사된 어휘 항목인 보수형의 사용 실태를 예비 조사 기간에 감지되었던 바에 의하여 중년층인 1세까지 적용하여 확인하는 조사였다. 3차 조사는 1·2차 조사 결과에서 발견되는 언어 변수에 의한 이 1세 집단의 하위 분류의 가능성 여부와 어두음결의 ‘·’의 유지 현황을 조사하는 일이다.

1) 조사 대상 집단 선정

본 조사의 내용이 일본어와 제주방언의 이중언어 사회에서 제주방언의 보존을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제보자들은 예비 답사 기간 동안에 파악된 방언 화자들 중에서 제주방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고령자에서 중년층에 이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제보자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과 제주방언 모 집단 사이에는 방언 구사력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표본 집단의 방언 보수형의 유지량이 많은 쪽으로 나타날 것(플러스 대립가설)²⁾을 전제하기로 하였다.

-
- 2) 사회현상을 조사할 때 조사 대상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선정 작업은 표본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모집단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우리가 표본으로 택한 집단에서 나온 자료를 모집단의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가설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표본집단과 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영의 가설), 표본집단과 모집단 사이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표본집단이 더 나을 것이다.(플러스 대립가설) 표본집단이 모집단보다 못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마이너스 대립가설)이다. 본 조사에 적용한 가설은 위의 세 가지에서 '플러스 대립가설'을 택하였다(김윤경 1996:95-104 참조).

2) 제보자 선정 기준

- ㄱ) 본 조사 내용과 목적이 보수형의 유지와 접촉 현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행하여야 하므로 제주방언 구사가 능숙한 1세대.
- ㄴ) 1세를 기준으로 하되 10세 이하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왔으나 제주방언을 ㄱ)의 정도로 구사하고 있는 1.5세.
- ㄷ) 1세지만 본 조사자와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주로 말하거나 발음상 일본어의 간섭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은 접촉 현상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본 조사 항목인 ‘.’음의 제보자에서는 제외하였다.
- ㄹ) 최근 10년 내에 제주도나 서울·부산 등에서 1~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 ㅁ)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 전인 1970년대까지 이주한 1세.

2)의 제보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제주 출신 1세(33명)의 집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제보자 집단 표

이주 시기	1920	1930	1940	1950	1960
인원수(33명)	2	4	10	12	5
나이 분포	95~82	81~80	80~74	89~58	62~52

이주 시기	1920	1930	1940	1950	1960
이주 당시 평균 나이	14	14	19	20	21
이주 당시 나이 분포 (차이)	07~20 (13)	10~15 (05)	15~25 (10)	12~43 (31)	19~25 (06)
현재 생업	무	무	무	가내수공업(1)	향토음식점(1) 가내수공업(1) 식품가게(2)
학 력	무	무	무	초 중퇴(1) 초 졸(1)	중 졸(2)
출신 지역	한림	대정, 조천 삼양, 신촌	신산, 고성 서귀, 김녕(2), 법환, 강정 조천(2), 신촌	신촌, 평대(2), 법환, 대정(2), 제주, 오조, 시흥, 서귀, 하귀, 김녕	김녕(2), 제주, 애월, 화순

3) 조사 방법(질문지, 조사자와의 대화, 제3자와의 대화)

(1) 1차 조사 - 기초 어휘 보수형 조사(2001. 11~12)

앞의 제보자 집단 표에서 제시된 제보자를 포함한 제주 출신 고령자 여성들 중에서, 70대 이상의 2명을 대상으로 기초 어휘의 보수형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어 사전》에 등재된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항목 중에서 보수형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휘들을 동사 17개, 형용사 20개, 부사 15개, 관용 표현 10개, 명사 20개 등 총 82개 항목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아래와 같은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보자들과 문답식으로 조사 시도하였다.

◆ 질문지의 예

▶ 부엌에 술을 걸어 놓은 데를 무엇이라 합니까?

(답 : 술딕 / 표준어 : 부뚜막)

(2) 2차 조사 - 기초 어휘 보수형 사용 실태 확인 조사(2002. 1~2)

1차 조사에서 기초 어휘 항목 82개 모두가 이곳 고령자 집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조사 방법을 기초 어휘 보수형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질문지 형식(아래 참조)으로 기초 어휘 항목을 보충하여 수정하였다.

- 1차(동사 20개, 형용사 10개, 부사 6개, 관용 표현 5개, 명사 24개 합 65개)
- 2차(동사 25개, 형용사 5개, 부사 4개, 관용 표현 7개, 명사 30개 합 71개)

◆ 질문지의 예

- ▶ 오사카에서 제주도 사람들끼리 제주말로 말할 경우 다음 물음에 대하여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골라서 ○를 해주십시오.

<보기>

1. 예	2. 나는 쓰지 않지만 어른들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3. 처음 듣는 말이다
------	------------------------------------	--------------

- ▶ 눈길에 미끄러진다는 의미로 '넙끼린다'는 말을 씁니까?
(1. 2. 3.)

수정한 질문지는 표본 집단으로 선정된 고령자 70~80대 집단 4~5명과 60대 6명에게는 집단 면접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조사했다. 이 집단 면접 과정에서 1세대 집단 안에서도 나이라는 독립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50대 집단(5명)과 1960년대 이후에 이주해 온 남성들(60대 1명, 50대 1명)에게는 질문지에 표시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3) 3차 조사 (2002. 3~5. 15)

ㄱ) '·'음의 보존 실태에 대한 조사 - 조사 어휘항목 20개를 중심으

로 개별면접식, 자유대화식.

- 나) 제주방언 화자들의 제주방언에 관한 방언 의식 조사 - 문답식
- 다) 제일 교포들의 모국어에 관한 언어의식 조사 - 설문지³⁾

4. 조사 결과

4.1. 기초 어휘 보수형과 사용 실태 확인 조사

1차 조사인 보수형 조사는 제보자들의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와 본 조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어 어휘를 제보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 소통의 혼선을 빚었으나 조사 대상 어휘 항목 82개를 모두 조사할 수 있었다. 2차 조사에서 채택한 집단 면접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모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언의 보수형들의 유지 현황을 조사하는 데 유익했다. 더욱이 동일 방언권이지만 출신 지역이 다른 제보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별 변이형도 아울러 조사되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 2회에 걸쳐서 확인한 136개 어휘 항목의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 집단에서는 130개 어휘 항목, 비고령자 집단인 60대 집단(1950년대에 이주한 집단)에서도 지역별 변이형⁴⁾이 있을 뿐 고령자 집단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130/120개의 정도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참고

-
- 3) 이 조사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방언을 보존하고 있는 방언 의식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 1~3세 집단의 표본으로 1세 30살 이상 26명, 2세 36명, 3세는 10대에서 20대까지 2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 15문항에 걸쳐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2세 집단의 최고령자가 83세였고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 이 집단의 이주 역사를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는 추후 논문으로 발표 예정임
 - 4) 본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들의 제주도 현지의 출신지가 다양한 만큼 지역별 변이형이 조사되었으나 이 조사 내용에서는 이들을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차로 행하여질 제주 현지 조사에서는 이 자료들이 활용될 것이다

로 조사 대상으로 했던 60대 남성의 질문지 결과도 같은 세대인 여성 집단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여성 집단(5명)과 같은 세대인 남성(1명)에게서 조사된 결과는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 집단의 응답 결과는 '1. 예'에 응답한 항목이 92~107개, '2. 나는 쓰지 않지만 어른들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에 응답한 항목이 34~22개, '3. 처음 듣는 말이다.'에 응답한 항목이 10~7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1세대 집단 안에서 보수형의 사용 실태에 따라서 60대와 50대를 분기점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참이라면 '왜 60대 집단이 분기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보자들과 3차 개별 문답식의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2. '·'음의 유지 현황

4.2.1. 조사 대상 어휘 항목 및 조사 방법

내리다/nɔrida/, 무섭다/mɔsɔpda/, 가깝다/bɔdida/, 다르다/tto-nada/, 곁/jɔkko/,
 짧다/jɔrida/, 갈다/gottida/, 갈다/khottij-hoda/, 한달/hon-dor/, 나물/nomor/,
 사월/sowar/, 차차/chochɔ/, 달다/dorda/, 바람/bɔrom/, 메밀/momor/, 딸/ttor/,
 쌀/ssor/, 닭/dok/, 얼굴/nos/, 흙/hok/

본 조사에서는 주로 '·'음의 18세기에 일어난 2단계 소실의 연장선에서 이 방언의 어두음절의 '·'가 중앙어와 동일하게 '· > ㅏ'로 합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시대의 '·'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 항목을 3음절어 이상 8개, 2음절어 7개, 1음절어 5개로 모두 20개로 선택했다

3차 조사는 앞에 제시된 제보자들과 1:1로 조사 항목에 대해 개인별

로 문답한 개별 조사였다. 조사 항목은 2차 조사에서 제보자들과 조사자의 자유로운 대화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이들 1세 집단 안에서 예상했던 나이 차에 따른 방언 변이형을 중심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운, 어휘 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음운 분야에는 ‘·’음의 유지 현황에 초점을 두어 문헌어와 관련되는 어휘 항목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질문 방법은 1차 조사에서와는 달리 해당 어휘 항목에 대응하는 일본어를 제시하고, 이 말을 제주방언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번역식 질문법을 채택했다. 이 질문법은 1차 조사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조사자와 제보자들 사이에 의사 소통상의 혼선이 제거될 수가 있었다. 자료 분석 결과 2차 조사에서 기대했던 나이에 의한 변이형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 오히려 이주 시기에 의한 변이형이 이 집단을 양분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4.2.2. ‘·’음의 유지 현황 조사 결과의 자료 분석 및 해석

조사 대상인 앞에 제시된 어휘 항목에 대한 33명의 제보자⁵⁾들의 발음이 녹음·기록된 자료를 우선 개인별로 통계를 냈다. 자료 분석에서 발음 판정의 기준은 음향 분석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조사자의 청각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의 음가로 예상했던 [ɔ]에 해당하는 발음에는 ‘O’, 그 외 이 발음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발음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여 분석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다.⁶⁾ 이런 분석 방법으로 우선 어두음절의 ‘·’의 음

5)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제보자는 면접 당하는 것을 기피하여 조사자와의 대화로 참여한 제보자들까지 포함한다면 50~6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개인 면접을 꺼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것과 그 동안의 정치적인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형성된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는 조사 후에 제보자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 중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성만 가르쳐 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6) 방언학은 물론 응용 언어학이나 사회 언어학에서 통계 자료로 쓰이는 기본 자

가를 유지하고 있는 제보자들을 개인별로 각 항목에서 '○' 표시를 얻은 숫자를 개인 성적으로 처리한 결과, 20개 어휘 항목에서 최대 18개에서 최소 0개까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여 주었다.

<표 2>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 분포

발화 빈도수(20)	18	16	14	12	0
인원수 (33)	6	9	9	4	5

<표 2>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 분산 범위가 6개라는 점이다. 이들 분산도는 최대 발화 빈도수 18개에서 최소 발화 빈도수 12개를 뺀 것으로서 그 편차는 6/20으로 약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발화 빈도수 12개의 다음 단계에서 0개로 급락한 현상이다. 이 기형적인 현상의 이유를 밝히는 방법으로 위의 자료를 2차 조사 과정에서 예상했던 나이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재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과연 나이가 어두음절의 '·'음의 독립 변수가 될 것인가?

<표 3>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 분포 - 나이

나이/명(33)	나이 분포	빈도수	인원수	평균 발화수	백분율(%)
80/10	80~95	18	6	17.2	80.6
		16	4		
70/13	70~79 (9)	16	6	15.6	70.8
		14	6		
		12	1		

료 분석에서 조사자인 분석자의 주관에 개입되기가 쉽다. 즉 예상했던 가설이 증명되기에 수집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설과 초점이 맞지 않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및 분석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

나이/명(3)	나이 분포	빈도수	인원수	평균 발화수	백분율(%)
60/6	61~67 (6)	16	1	9.2	46
		14	2		
		12	1		
		*0	2		
50/4	52~58 (6)	*12	1	3	15
		0	3		

<표 3>은 어두음절의 ‘·’음의 실현 여부가 70~80대 집단에서는 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70대에서 60대로 오면 그 평균 빈도수는 9.2로 급감하고 있고, 이런 급락 현상은 60대에서 50대 집단으로 오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이 음가가 어느 정도 나이 차에 따라 종속 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표 3>에서는 70대에서 60대로의 평균 빈도수를 반으로 줄어든 게 작용한 요인이 60대 집단에서 ‘·’발음을 전혀 하지 않은 2명의 제보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50대 집단의 12개를 기록한 제보자는 이 세대를 ‘·’음의 유지 세대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분석의 통계상으로 보면 이러한 요인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50대 안에서도 어두음절의 ‘·’의 음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60대의 발화 빈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제보자 6명 중에서 위 세대인 70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3명과 아래 세대인 50대와 같이 하는 3명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50대와 동일하게 어두음절의 ‘·’의 음가를 모르고 있는 제보자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곧 70대 집단까지 흔들리던 이 음가가 60대에서 소멸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세대들의 어느 시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 <표 3>이 보여 주고 있는 60~70대 집단의 12개와 동일한 발화 빈도수를 기록한 50대 제보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표 4>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 분포 - 이주 시기

이주 시기/명(33)	발화 빈도수	인원수	평균 발화 빈도수	백분율(%)
1920 / 2	18	2	18	90
1930 / 4	18	2	16.5	87
	16	1		
1940 / 10	14	1	14	76
	18	1		
	16	5		
1950 / 12	14	3	14	71
	12	1		
	18	1		
	16	3		
1960 / 5	0	5	0	0

우리는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종합해서 우선 1940년대에 이주해 온(<표 3>) 70대(<표 2>)까지는 어두음절의 ‘·’음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표 4>는 1950년대까지 이주한 집단에도 70% 이상 ‘·’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1920~195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의 이주 시기에 걸쳐서 이 음가는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표 4>로 1950년대 중반까지 이주한 당시의 2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이 음가가 최소한 70% 이상 발화되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60년대의 이주 집단에서는 0%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1950년대에 71%에 해당하던 이 음가가 불과 10년 사이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급락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3>에서 60대에서 50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보인 급락 현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에 근거하여 <제보자 집단 표> 자료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주한 집단의 나이 분포를 중심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표 5> 1950~1960년대 이주자들의 나이 분포

이주 시기	1950(1952~1957)	1960(1964~1969)
인원수	12	5
현재 나이/ 이주 당시 나이	89/43, 79/30, 76/26, 75/26, 74/26, 72/26, 70/23, 67/22, 65/18, 64/19(2), 58/12	62/25, 61/20, 57/21, 55/19, 52/19
현재 나이 분포 및 인원수	58~89세(31세) 80(1), 70(6), 60(4), 50(1)	52~62세(10세) 60(2), 50(3)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에 이주한 제보자들의 나이 분포는 89세(1명)에서 70대(6명), 60대(4명) 58세(1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의 계층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표 5>는 <표 4>에서 왜 1950년대 이주 집단이 보수형인 어두음절의 ‘·’음을 1940년대 이주한 70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것은 70대 이상의 제보자가 1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7명으로 인해서 어두음절의 ‘·’음의 유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표 5>는 <표 3>에서 60~70대와 동일한 발화 빈도수 12를 기록한 50대 제보자 1명이 바로 이 시기에 이주했고 아울러 특히 12세에 이주한 이 제보자의 경우를 보면 방언 습득 시기보다는 방언 사용 환경이 보수형의 유지에 크게 작용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이 <표 5>는 <표 4>에서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에서 0을 기록한 2명의 60대 제보자가 1960년대의 이주자임도 밝혀주고 있다. 결국 1950~1960년대에 이주한 제보자들 17명 중의 70대는 1940년대의 이른바 고령자 집단으로 소속되고, 나머지 60대 6명은 어두음절의 ‘·’음을 발음하는 부류(4명)와 모르는 부류(2명)로 나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 세대이면서 한 그룹은 고령자 집단, 나머지 한 그룹은 비고령자 집단의 방언 성격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현상의 원인은 이들의 이주 시기가 1953년(부○○, 65/18)에서 1965년(한○○, 62/25)의 12년이라는 이주 시기의 차이로 설

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이주 시기를 60대 제보자들의 방언 차를 낳게 하는 변수로 해서 1세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분기 시기를 1950년대로 잠정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표 4>에서 제기되었던 방언 변화가 10년 사이에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에서 0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기에 제주도 현지에 급격한 방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정하고 그 요인을 언어 변화의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언어 변화는 외부 언어와의 접촉 과정에서 주로 심리적, 사회적인 작용이 화자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생긴 변화를 말한다. 언어의 변화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규칙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정 시기에 관찰되는 언어의 급격한 변화에는 언어 외적 요인인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할 때다. 따라서 문제의 1950년대에 제주방언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60대 이주자들의 출생 시기가 1940년대 전후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방언 습득 시기를 1940년대에서 방언 습득 완성 시기를 1950년대로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들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예상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제주도의 사회는 두 번에 걸친 큰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1948년의 4·3사건과 1950~1953년의 한국전쟁(6·25 전쟁)이다. 이 두 전쟁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수의 토벌대와 피난민이 들어오게 된다. 이 두 사건 이전에는 육지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으며 고립되었던 제주도는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표준어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방언 화자들과의 접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언어의 접촉도 활발하게 된다.

또 하나는 1961년부터 이루어진 이 지역의 관광지 개발 사업과 표준어 교육의 확대이다. 이와 같은 짧은 시기에 일어난 급격한 이 지역의 사회 변화는 이 방언 화자들의 표준어와의 접촉을 한층 가속화시켜 주게 된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인구의 증가와 이와 반대로 제주 출신자들의 교육, 상업 등의 목적으로 육지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1950년대부터이다. ‘·’음의 경우 바로 이 시기부터 어두음절의 ‘· > ɔ’인 다른 지역 방언형과 ‘· > ɒ’의 변화형인 표준어형이 이 방언 안에서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195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고령자 집단인 70대 이상은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을 전혀 모른 채 제주도에 고립된 상태에서 그대로 일본이라는 사회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고립된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고령자 집단은 본 조사 대상인 어두음절의 ‘·’음의 이 시기의 변화형인 ‘· > ɔ’와 ‘· > ɒ’의 존재를 모른 채 이주 당시까지 사용하던 ‘·’의 음가인 [ɔ]와 그 외의 보수형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미 방언 습득 완성 시기가 훨씬 지난 20~26세에 이주한 현재 70대도 앞의 집단과 같으므로 외부 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변수로 작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10대였던 현재의 60대의 경우에는 외부 언어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지만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발화 빈도수의 분포가 70대보다 낮은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어두음절의 ‘·’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서 1960년대에 이주한 현재 60대들은 언어 습득 완성 시기인 10대를 방언 변환기인 1950~1960년대 중반을 제주도에서 지냈기 때문에 표준어와 다른 지역 방언의 간섭을 상당량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개신형을 습득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1950년대에 제주방언 사회를 떠난 동년배들과의 부분적인 방언 차를 보

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60대 집단에서 조사된 방언 차는 이 시기의 이 지역의 방언 변화가 언어 내부의 일반적인 변화 결과로서의 변이형이 아닌 표준어인 개신형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 시기가 1950년대인 70대 집단과 1960년대 이후에 이주한 70대 제보자 사이의 방언 차는 이보다 더욱 크게 조사되었다. 특히 어두 음절의 ‘·’음의 유지량은 1950년대에 이주한 60대 제보자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1세 집단의 방언 변화가 현재 제주 지역의 방언 변화 속도보다 매우 느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상 <표 1>에서부터 <표 5>를 통한 자료 해석의 결과 1세 집단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따라서 <표 1>의 1세 집단을 어두음절의 ‘·’음의 실현 여부에 따라 나눌 경우, 70대를 기준으로 하여 고평자와 비고령자 집단으로 할 수가 있다. 한편 이주 시기를 변수로 할 경우, 제주도가 경험한 두 전쟁의 시기인 1948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가 기준이 되어 그 이전에 이주한 집단을 ‘전전(戰前) 1세’, 그 이후에 이주한 집단을 ‘전후(戰後) 1세’⁷⁾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재일 동포 1세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눌 경우 앞의 방언적인 변수와 사회적인 변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좀더 일반적인 기준이 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보수형의 유지 집단을 1950년대까지 이주한 70대 이상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가 있게 된다.

7)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재일 교포들에 대한 세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전쟁 전 1세’의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일 교포들을 지칭할 때 쓰는 ‘전쟁’은 주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교포들이 일본의 3D 작업을 위한 인원 동원 정책에 따라 동원된 이주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전후’의 개념에 2차 대전을 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어디까지나 일본사의 시각에서 기술하는 식민지 사관의 용어이지 한국사의 명칭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제주 출신 재일 교포들의 1세 집단에 대한 이주 시기 차에 따른 세대를 지칭할 때에 1950~1960년 한국전쟁을 겪고 밀항한 이들의 이주 역사를 안다면 ‘전쟁 전후’라는 용어에 2차 대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오사카 제주방언 사회의 ‘·’음의 변화

다음의 <표 6>은 이상의 구분이 뒷받침 받을 수 있는 이 1세 집단에서 조사된 언어 변수 20개 중에서 예로 뽑은 표준어 ‘같다, 무섭다, 내리다, 흠’에 해당하는 이 방언형의 변이형들이다. 이 표는 이 1세 집단 안의 방언 화자들 사이에서 1950년대를 분기점으로 그 변이형의 분포가 보수형에서 개신형으로 이행해 가는 이 방언의 변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표 6>은 앞의 <표 5>에서 내린 ‘이주 시기+나이 차에 의한 사회적 변수가 이 집단의 고령자와 비고령자 집단 사이에서 ‘·’음이 언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그 변화 속도와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표 6>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와 변이형의 분포

변이형 \ 이주 시기 (명)	1920 (2)	1930 (4)	1940 (10)	1950 (12)	1960 (5)	1970 (4)	합 37
ㄱ뜨다	2	4	7	4			17
ㄱ트다							0
고뜨다			2	4	2	1	9
고트다			1	4	2	2	9
가트다					1	1	2
같다							0
ㅁ습다	2	1	2	1			6
ㅁ슴다		2	5	5			12
ㅁ섭다		1	1	3			5
모습다				3	3	1	7
모섭다						1	1
무섭다					2	2	4
ㄴ리다	2	4	8	9			23
내리다			2	3	5	4	14
흠	2	2	6	3			13
흙				3	2	1	6
혁		1	1	2			4
흑		1	3	4	3	3	14

위의 <표 6>는 1950년대 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두 집단의 어두음절의 ‘·’음의 발화 빈도수의 분포가 전혀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전전 1세 집단인 1940년대까지 이주한 집단에서는 그 변이형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의 음가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1960년대 이후 이주자인 9명의 제보자들에 오면 ‘·’음의 변이음을 가진 칸이 완전히 비어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이형의 분포를 보면 1950년대에 이주한 집단은 ‘·’음을 유지하면서도 변이형의 분포가 1960년대 이주자들의 변이형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 세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폭이 넓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에 이주한 제보자들의 나이 분포가 89~58세에 이른다는 <표 5>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 이주한 제보자들 중 60대들의 보수형과 개신형의 방언 사용 실태 즉, 전전 1세 집단과 전후 1세 집단 사이의 과도기적인 단계의 방언 화자들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1950년대 이전 이주 집단인 70~95대인 고령자들 안에서도 이주 시기에 따라 그 변이형의 분포가 ‘·’음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음도 지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이 시기에 이미 ‘·’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이러한 속도로의 변화 양상은 전후 1세 집단 안에서도 특히 1960년대 이주한 제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도 이 표로 알 수 있다.

다음은 1세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음의 변화 모습을 <표 6>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갈다’의 경우 이 방언에는 두 개의 보수형과 한 개의 표준어 그리고 ‘고트다’와 ‘갈다’의 음운 접촉형인 ‘가트다’ 등으로 그 변이형이 다양하다. 이 6개의 변이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은 ‘ㄱ뜨다’이다. 그 이유는 이 ‘ㄱ뜨다’가 ‘ㄱ트다’보다 시기를 앞서기 때문이다. ‘ㄱ뜨다’의 경우는 동사 어간 ‘-ㄱ-’에 어미 ‘-으다’의 결합형으로 재구할 수 있는 15세기 이전의 고형이다. 그런데 이 동사가 15세기 문헌어에는 ‘갈다’의 2음절어로서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도 제주방언과 중앙어가 방언 차를 보였음 알 수가 있다. 이 방언의 고형인 *갈으다의 음

성 실현형이 ‘ㄱ뜨다’인 것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어간과 어미 사이의 형태소 경계를 인식하는 이 방언 화자들의 발음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동사는 어간 자체만으로서 부사로 쓰이던 흔적이 15세기 문헌에 보이다가 그 후의 문헌에서는 ‘갈-’에 ‘ㅎ다’가 결합해서 유기음화로 실현된 ‘ㄱ타다’가 생산성을 얻게 된다. 이 ‘ㄱ타다’는 다시 16세기의 비어두음절에서 ‘-’로 합류한 ‘ㄱ뜨다’로 이 방언에 ‘ㄱ뜨다’와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두음절의 ‘·’의 음가를 알고 있는 고령자 집단에서는 ‘ㄱ뜨다’는 발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ㄱ타다’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 즉 ‘·’의 음가를 알고 있으면 ‘-뜨다’로 음성 실현하지만 ‘-타다’로 음성 실현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이 언어 형식이 이 방언에서의 변화 단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즉, 중앙어에서 18세기 중엽에 겪은 어두음절의 ‘· > ㅏ’에 의한 ‘ㄱ타다 > 가타다’가 이 방언에 개신형으로 들어왔으나, 고행인 ‘ㄱ뜨다’의 우세로 정착을 하지 못하다가 이보다 후기에 이 방언의 어두음절의 ‘· > ㅏ’의 규칙에 따라서 ‘고뜨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어형은 다시 1950년대 이후 표준어인 ‘갈다’의 음운 간섭을 받아 접촉형인 ‘가타다’로 마치 18세기 중앙어의 ‘가타다’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 유추가 뒷받침 받을 수 있는 점은 현재 제주방언 화자들이 이 3음절 형식을 ‘갈다’보다 보수형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언적 사실에서이다. ‘거뜨다’는 이 방언의 어두음절 ‘· > ㅏ’로의 또 다른 변이형이다. 이 ‘거뜨다’는 ‘고뜨다’로 질문 방법에서 기본형을 응답한 50~60대 제보자들의 자유로운 대화에서 “-거튼 거 있잖아, 이?” 하는 식의 관형형으로 활용할 경우에 조사된 자료로써 어두음절의 ‘· > ㅏ’로의 합류도 가능성을 짐작케 해준다. 이 ‘갈다’ 항목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이 방언에서 어두음절의 ‘·’음의 동요는 <표 5>에서 내린 결론인 최소한 1950년대 이전에 이미 시작했다는 점이다.

‘ㅁ습다’는 3음절어의 어두음절과 비어두음절의 ‘·’음의 소멸 단계를 국어사와 관련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채택한 항목으로 중세어의 ‘무의업

다'에 대응하는 이 방언의 보수형이다. 이 'ㅁ 습다'는 주로 이 집단의 80대 이상의 제보자에게서 조사된 자료로써 비어두음절의 '·'음이 'ㅡ'로 합류한 16세기형인 'ㅁ 습다'와 'ㅁ'로 합류한 'ㅁ 습다'가 70대까지 폭넓게 변이형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이형들의 분포는 곧 이 방언에서도 어두음절의 '·'음의 소멸보다 비어두음절의 '·'음이 먼저 소멸된 중앙어의 변화와 같은 궤도를 밟았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ㅁ 습다'에서는 비어두음절의 '·'음이 이 방언에서는 반드시 'ㅡ'로만 합류되지 않았음도 알려준다. 이러한 설명은 추가로 조사한 어휘 항목들 가운데에서 명사의 경우는 남즈 > 남지, '여즈 > 여지, '아들 > 아탈' '훈즈 > 훈지' 등으로 '· > ㅁ'의 규칙을 보였다.

'ㄴ 리다'의 경우는 이 방언이 점진적이며 규칙적인 음운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표준어인 '내리다'로 대체되어 가는 대표적인 예이다. 음운 변화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중세어의 모습인 어두음절의 '·'음의 유지형 다음 17~18세기형인 'ㄴ 리다'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15세기 형식에서 표준어로 대체되어 전전 1세인 고령자 집단에서는 보수형인 'ㄴ 리다', 전후 1세인 비고령자 집단에서는 개신형인 표준어 '내리다' 2개가 이 방언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휘 항목 'ㄴ 리다'는 위의 4개 어휘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하게 될 수 있다.

1음절어인 '흙'은 문헌어에서도 18세기의 일반적인 공식인 '· > ㅍ'의 변화를 겪은 '흙 > *꺄'이 아니라 16세기 비어두음절의 변화 공식인 '· > ㅡ'에 의한 '흙'으로 변한다. 이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두음절의 '· > ㅍ, · > ㅅ'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는 '헉/혹/혹'은 어두음절 '· > ㅅ'의 변화뿐만 아니라 '· > ㅁ'로의 합류도 보여 준다.⁸⁾ 그리고 어두음절의 '·'음의 유지율이 높은 70~80대 집단 안에서조차 이 항

8) 이 방언에서 어두음절의 '·'에 의한 대립항의 대표적인 어형인 '하다(多): ㅎ다(爲)의 경우, 'ㅎ다'는 '-허다/-호다' 등의 'ㅁ/ ㅅ'로 음성 실현하고 있다.

목은 4개의 변이형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앙어에서 음운 변화 과정을 겪은 시기에 가장 가깝게 음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 항목은 본 조사 대상 집단인 1세 집단의 고령자 집단과 비고령자 집단에 ‘혹’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던 것이다.

이상 <표 6>에서 얻은 결론은 첫째, 어두음절의 ‘.’음은 1950년대 이전에 이주한 70대 집단에서도 ‘ㄱ’로 합류하고 있는 현상에서 이들 제보자들의 나이가 20대였던 지금부터 50여 년 이전에 이미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 이 방언의 변환기인 1950~1960년대에 오게 되면 외부 언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다른 모음으로 합류해 버렸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현재 제주도 현지의 50~60대 집단을 기점으로 그 아래 집단에서는 어두음절의 ‘.’의 음가를 접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둘째, 변이형이 많은 어휘 항목일수록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거나 변이형들 간의 심한 갈등을 겪는다. 또 변이형이 단순할수록 변화를 이미 겪었거나 개신형으로 그 변화 방향을 돌릴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이 두 집단에서 조사된 20개의 어휘 항목에 대한 변이형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 <표 7>은 <표 6>이 보여 주듯이 이 집단의 1950년대 이후 이주한 50~60대인 비고령자 집단 중년층에서 어두음절에 ‘.’음의 발화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 우리는 ‘.’음의 실현 여부가 1세 집단을 고령자 집단과 비고령자 집단으로 나누는 언어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 외 이 변이형들은 곧 이 방언의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 방향 즉 구체적으로 어느 음으로 합류하고 있는가를 관찰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표 7> 이주 시기+나이에 의한 변이형의 유형

어휘항목	집단	고령자 집단(전전 1세)	비고령자 집단(전후 1세)
내리다		느리다, >내리다	내리다
무섭다		므습다, ㅁ습다, ㅂ습다	모습다, 무섭다

어휘항목	집단	고령자 집단(전전 1세)	비고령자 집단(전후 1세)
가깝다		빤디다, 뵤디다	뵤디다, 뵤드다, 고평다, (가깝다)
다르다		뜨나다	또나다, 뜯나다, (다르다)
결		즈기·스디, 즈꿏디 저꿏디 윽	조꿏디, 저꿏디, 윽, 윽 결
짧다		즈르다, >즈르다, 쫘르다	쫘르다, 쫘르다, >쫘르다,
같다(如同)		꺏뜨다, 고평다, 고평다,	고뜨다, 고평다, 거뜨다, 거뜨다, 가뜨다, (같다)
같다(同)		꺏뜨허다, 꺏뜨허다, 꺏뜨허다 꺏뜨허다, 꺏뜨허다	꺏뜨허다, 꺏뜨허다 같다 (如同과 동일)
한 달		흔덜, 흔덜	흔덜, 흔덜, *흔덜 (한달)
나물		느물, 느물, 노물, (느물꺏), (꺏지름/꺏노물/꺏너물)	노물, 나물(꺏노물/나물 (노물꺏 꺏)
사월		스월	소월, (사월)
차차		츠츠, 초처	초초, 차차, 점점
달다		들다	들다, (달다)
바람		브롬, 브롬	보름, (바람)
메밀		미밀, 미밀, 미물 (미밀 췌기), 모물	모물, 모물, 메밀, (모물췌기)
딸		똥	똥, (딸)
쌀		췌, 꺏췌(白米), 꺏췌	췌, 꺏췌, 꺏췌
닭		독, 독새기	독, 독새기, (닭, (달걀)
얼굴		낫, 낫, 양지, 얼굴	낫, 얼굴
흙		헝, 헝, 헝, 헝	헝, 헝

<표 7>의 변이형들은 현재 오사카 거주 70대 이상과 50대 집단의 방언 사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50여 년 이전의 제주방언 화자인 20대 전후와 30여 년 이전의 20대 전후 집단 사이의 방언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먼저 50년 전의 방언 화자들인 전전 1세 집단의 어두음절의 발화 실태를 보기로 하자.

우리는 이미 <표 3>에서 이 집단의 어두음절의 ‘·’의 평균 발화 빈도수가 14.6/20임을 본 바가 있다. 이 수치는 <표 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집단에서 이미 50년 전에 어두음절의 ‘·’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집단에서 어두음절의 ‘·’의 불안정을 보인 항목들

중 공통적인 것은 ‘조ㅁ·ㅁ>저곳, ㄱ뜨다>고뜨다, ㄴ물>노물, ㄴ>낫, ㅎ>혹/후’ 정도이다. 이 집단에서 어두음절이 ‘·’음으로 실현된 항목들을 보면,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두음절의 ‘·’가 ‘ㄱ, ㄴ, ㅁ’로 합류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어의 2단계 변화 규칙인 ‘·>ㅁ’의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현상이 이 집단의 공시적인 수의 변이형인지, 방언 변화의 움직임인지는 이 집단의 전후 1세 집단에서 나타난 해당 항목들의 음성 실현형을 살펴본 후에야 분명해질 것이다.

그 외 전전 1세 집단에서는 비어두음절의 ‘·’음은 문헌어와 동일한 모습인 ‘ㅁ’로 합류한다. 그러나 통사적 구성 항목의 경우,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ㄱ’로 합류한 항목도 보인다. <표 7>에 보이는 ‘흔 들>흔덜⁹⁾에서는 첫째 형태소인 ‘흔’은 어두음절의 ‘·’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둘째 형태소인 ‘들’은 ‘돌’이 아닌 ‘덜’로 발화하고 있는 예가 그것이다. 이 ‘덜’은 혼자 쓰일 경우에는 “덜들이 용돈 보내주어...” 등과 같이 어두음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ㄱ’로 합류한 ‘돌돌이’를 채록할 수 있었으나 ‘·>ㅁ’의 변화 공식에 의한 ‘달달이, 달마다’나 ‘덜덜이, 덜마다’ 등의 어두음절에서 ‘ㄱ’로 합류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예는 ‘·’음의 두 단계 소멸 시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 방향은 형태소 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ㄴ물, ㄴ물, 아들’ 등이다. 이 항목들은 ‘ㄴ물/ㄴ물/ㄴ물’, ‘ㄴ물/ㄴ물/ㄴ물’, ‘아들/아덜(아들)’ 등의 변이형으로 공존한다. 그런데 이 변이형들이 보여 주는 비어두음절의 모음 분포는 우리에게 이 방언에서는 ‘ㅁ’만이 아니라 ‘ㄱ’로의 분화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 단계는 이 집단이 표준어형인 ‘아들’을 사용하지 않는 비표준어 집단이라는 특성에 의거하여 중앙어의 비어두음절의 ‘·’음이 ‘ㅁ’로 합류하기

9) 전후 1세 집단에 적용되는 언어 변수로서 ‘흔 들’과 동일한 통사 구성체인 ‘지난 달’을 전전 1세 집단 체보자들 100%가 ‘넘은 달’로 응답해 주었다. 바로 이 ‘넘은 들>넘은 달’로서 ‘흔들>흔덜’과 같이 후행하는 형태소의 어두음절이 ‘ㅁ’로 합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전에 방언형 ‘아들/아덜’의 ‘· > ㅏ’의 단계를 가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 후 ‘ㅏ > ㅑ’로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의 변화 과정을 겪은 후 순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앞의 ‘나물, 메밀, 차차’의 변이형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은 이 집단에서 조사된 <표 6>의 ‘ㅁ습다’를 ‘ㅁ습다’로 응답한 제보자들의 일반 대화에서 “와와와 밤이 혼저 가 져터민 파썩 ㅁ스와/ㅁ서와.”로써 예상할 수 있는 ‘ㅁ스와’보다 ‘ㅁ소와, ㅁ서와’의 발화 빈도수가 많은 점에서 확인 받을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전후 1세 집단인 비고령자 집단의 변이형들을 보기로 하자. <표 7>의 오른쪽 난에 보이는 이 집단의 변이형들을 보면 고령자 집단인 전전 1세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던 어두음절의 ‘·’음은 물론 다른 어휘 항목들의 ‘·’음조차 대부분 ‘ㅏ’와 ‘ㅑ’로 변해 있어서 ‘·’음의 소멸 두 번째 단계 공식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를 통해 우리는 이 방언에 남아 있던 ‘·’음이 전전 1세들이 제주 지역에 거주하던 1940년대로부터 20여 년 후인 1960년대의 동일 세대 집단에서는 이미 국어사의 단계와 동일한 과정으로 소멸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보인 제보자들의 반응에 의한다면 이 결론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 1세 집단의 괄호 안에 있는 변이형들에 대한 제보자들의 반응을 제시하기로 한다.

조사 과정에서 전후 1세대인 제보자들의 대부분이 어두음절이 ‘ㅏ’로 합류한 ‘ㅏ’형을 기본적으로 응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괄호 안의 ‘ㅑ’형을 표준어로 추가하면서 이들이 제주도 현지에 거주하던 1950~1960년대 당시에 학교에서는 ‘ㅑ’형을 쓰고 집에 와서는 ‘ㅏ’형을 쓰던 이중 방언 사용을 기억해 주었다. 이 집단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이 방언에 남아 있던 어두음절의 ‘·’음은 이 시기에 이미 ‘· > ㅏ’로 그 변화 방향이 정착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2음절어에서 ‘ㄴ물 > 노물, ㅂ롭 > 보롭’, 1음절어에서는 ‘썰 > 썬, ㄴ > ㄴ, ㄷ > ㄷ’으로 어두음이 ‘ㅏ’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언이 경험하던 이러한 변화 방향은 18세기 중엽에 일어난 중앙어의 ‘· > ㅏ’

의 일반적인 궤도와는 다른 궤도이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국어사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친 ‘· > ㄱ’로의 변화가 이 방언에서는 ‘· > ㅌ’보다 일반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국어사 연구에서 우리는 어두음절과 비어두음절의 ‘·’음의 소멸 후 다른 모음으로의 변화를 유인한 어떤 음운론적 제약 조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후 1세 집단인 비고령자 집단이 보여 주는 어두음절의 ‘· > ㄱ’의 변이형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결국 18세기의 이 방언과 중앙어 사이의 방언 차를 설정해야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표 7>의 전후 1세 집단에 보이는 어두음절의 ‘ㄱ’형은 이 방언이 18세기에 경험했던 중앙어의 또 하나의 방향인 어두음절의 ‘·’음이 ‘ㄱ’로 합류하는 방언형으로서 이 방언에서는 이 시기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는 1950년 전후로 ‘· > ㄱ’의 동일한 변화형을 겪은 다른 지역 방언이 들어오으로써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방언 교체 시기와 현상이 현재 오사카 거주 재일 교포 제주 출신 중 이 시기에 이주한 전후 1세 집단의 어두음절의 ‘ㄱ’형과 함께 조사된 표준어형인 ‘ㅌ’형의 공존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표 6> 참조). 그리고 <표 7>이 보여 주는 전후 1세 집단의 어두음절의 ‘ㄱ’와 대립하는 표준어 ‘ㅌ’형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제주방언에서는 개신형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표 7>의 어두음절이 ‘ㄱ’인 ‘·’음의 변이음을 가진 단어는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공시적인 변이형으로서가 아니라 표준어인 개신형 ‘ㅌ’형에 대한 보수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의 변화 선상에서 볼 때 이 집단은 현장 시간과 실제 시간 방법으로 조사할 경우 상대적 보수형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상으로 본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8>로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1세 집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볼 수 있다.¹⁰⁾

<표 8>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1세 집단의 ‘ㄹ’음의 변화

제주방언 ‘ㄹ’의 실현			
이주 시기 + 나이	전전 1세 집단	전후 1세 집단	*신 1세 집단
이주 시기	1950 초기 이전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나이 분포	95~67세	62~52세	75~48세
이주 당시 평균 나이	17세	20세	26세
어두음절 ‘ㄹ’음의 발화 빈도	①80~95세 [ɾ] ②67~79세 [ɾ]>([o])	[o]>([a],[ã])	[a]≥([o])
비어두음절의 ‘ㄹ’의 발화 빈도	[ɾ, ʔ], [i, -], [a, ɾ]	[i, -], [u, ɾ]	[i, -], [u, ɾ]

위 표의 ()안의 실현형은 발화 빈도수가 낮았으나 이들 제보자들의 자유 대화에서 조사된 변이음이다. 이 변이음들의 출현은 곧 이 음가의 변화 움직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전전 1세 집단의 ②에서 보이는 [o]>[o]는 <표 3>의 70대 제보자들의 어두음절 ‘ㄹ’음의 발화 빈도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조사 대상 어휘 항목 20개 중에서 평균 15개를 기록한 이 집단의 나머지 5개 정도의 어휘 항목 어두음절 발음이 바로 [o]인 ‘ㄹ’형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 1세 집단의 방언 사용 실태는 현재 제주방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본 조사 과정에서 대상 집단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ㄹ’음의 변화 방향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였음을 밝힌다.

<표 8>에서 우리는 이 1세 집단을 구성하는 전전 1세와 전후 1세를 가르는 나이 차가 불과 10여 세 안팎이라는 점으로 볼 때 주어진 자료에서 지금까지 ‘언어 변화란 겨우 몇 년의 연령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 단위의 나이가 문제라는 사회 언어학의 일반 이론이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조건은 동일 지역 안에서의 언어 변화를

10) 1세 집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언어 변수는 이 외에도 어두음과 비어두음의 격음:경음, 비구개음:구개음화, 형태소의 고형 유지 여부, 문법화와 관련된 통사구조의 변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논문에서 추가 발표하기로 한다.

설명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지, 이 집단과 같이 본국과 오랫동안 격리된 이주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의 경우, 이주 당시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하는 까닭에 방언 변환기인 1950~1960년대에 이주한 현재 60대의 집단에서는 나이보다는 이주 시기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8>에 참고로 제시한 1980년대 이후에 이주한 신 1세 집단 70대 제보자와 1950년대 초반에 이주한 전전 1세 집단 70대 제보자의 방언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큰 차이가 나타나¹¹⁾ 이것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6. 결론

본 조사를 통해서 조사자가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 목적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현재 이 집단의 95세에서 52세의 한 세대 차가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방언 변이형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길게는 두 세대에서 한 세대 이전의 제주방언의 살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 가능했다. 마치 80~30년(1920~1960) 전에 찍어 두었던 영화를 보는 듯한 실제 시간의 제주방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은 사회언어학의 조사 방법인 현장 시간과 실제 시간을 복합적으로 조사하는 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언어의 변화 과정은 관찰 가능하다는 문법론자들의 주장을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둘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방언의 방언사에서 문제로 남아있는 제주도 현지에서는 이미 ‘ㅏ, ㅑ, ㅓ, ㅕ’로 그 변화를 마친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 초기 시기를 설정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본 조사에 앞서서 조사자가 가정했던 이 방언의 변화 요인 가

11) 이 조사 결과는 추후 논문으로 발표 예정임.

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인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제주도가 겪은 1948년 4·3사건과 1950~1953년에 겪은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 지역의 급격한 개발이라는 사회적인 요인이 1세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변수인 ‘이주 시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제주방언의 변화는 이 시기를 출발로 하여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 지역으로 들어온 외부인들과의 접촉 및 학교 교육의 확대, 육지와와의 활발한 교류 등의 사회적인 변화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짐에 따라 방언 변화도 급격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반영으로 195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현재 70대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는 보수형의 대표적인 어두음절 ‘·’음을 70% 이상 조사될 수 있었으나 전후 1세 집단인 1960년대에 이주한 60대 이하의 중년층에서는 이 음가가 ‘ㄱ, ㄴ, ㄷ, ㄹ’로 합류한 이주 당시의 개신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에서 이 두 세대 집단의 언어 변수로 작용하는 어두음절의 ‘·’음이 제주도 현지에서 급격하게 소멸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1950~1960년대 초로 잡을 수가 있었다.

넷째, 조사 대상 어휘 항목인 20개의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어두음절의 ‘·’음이 ‘ㄱ, ㄴ, ㄷ, ㄹ’ 중 어떤 음으로 합류하는지 일반적인 규칙은 설정할 수 없지만 대략 ‘ㄱ’음 뒤의 이 음가는 ‘ㄱ’로 합류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어두음절의 ‘·’음의 변화가 어휘에 따라 확산된 현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조건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섯째, 전후 1세 집단인 중년층이 사용하는 방언형은 현재 제주도 방언에서 볼 때 역시 상대적인 보수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언어 형식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본 조사의 제보자들이 ‘ㄱ’형과 ‘ㄴ’형의 발화 빈도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방언형과 현재 제주도 방언의 개신형과 또 다른 방언 차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 집단의 방언 변화와 현지의 방언 변화의 대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 문헌

- 김윤경(1996), 《응용언어학과 통계학》, 한국문화사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탑 출판사.
이승녕(1953), 《제주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진성기(1975), 《남국의 방언》, 형설출판사.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3-1, 2.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지원.
현평효(1963), 제주도방언 ‘·’음 소고, 무에양주동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동국대.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pibari@hanmail.net

접수일자 : 2002. 8. 31.

게재 확정 일자 : 2002. 11. 15.

